ストーリー 01

차를 마신 컵에 우유를

처음에는 여러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앞으로 밖에 외출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예를 들면, 제 아이는 모국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에 가서 귀를 뚫어 피어스 귀걸이를 하고 나서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서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제 아이의 귀를 보고 만지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피어스 귀걸이가 그렇게 이상한 것인가?' 하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후로, 아이에게 친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모여 놀 때, 모두들 각자의 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때, 모두들 처음에는 차를 마셨는데, 한 아이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팩우유를 꺼내 각자의 컵이 놓인 곳에 놓아 두었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우유를 따라 주려고 생각해, 차를 마신 같은 컵에 우유를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망설이고 있어서 "내가 좀 이상한 일이라도 해 버렸니?" 라고 물었어요. 그 때, 그 아이의 어머니도 그 행동을 알아채고, 새 컵에 우유를 넣어 주었어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제 텅 비어 있으니까 별 상관없이 넣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모국에서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역시 일본에 와서는 '역시 다르구나!!' 라고 느끼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ストーリー 02

병원에서 자신의 기분을 전달하고 싶어도, 일본어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소아 천식 발작이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그 날은 굉장한 장대비가 내리고 추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선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역시, 제가 간 병원에서도 일본어로 여러가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간호사가 링겔을 맞힐 때, 때마침 한 번 바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잘못 찔러서 두 번째도 잘못해서 세 번이나 찔렀지 뭐예요. 아이도 그게 아팠던지 울고 있어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간호사에게 뭐라도 말하고 싶었죠. 왜 그렇게 서툴른지, 왜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건지 정말 화가 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머리 위로 무엇인가가 무거운 것이 내려온 느낌처럼,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는 말이 들려 왔어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고 난 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이 아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 병원인데도 저는 울음이 나와서 남편도 함께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침대 위에서 '간호사와 함께 엄마도 병실에서 나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라고 한 것이 일본어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ストーリー 03

몇 시간이나 걸어서 겨우 돌아 왔다

일본에 왔을 때, 아이가 어렸으니까 거의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잘 모르니까 전철을 타고 어떻게 가는지도 그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철을 별로 탄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 때, 버스를 타면 차멀미가 굉장히 나서 버스도 못 탔어요. 그 대신에 자전거로 가곤했어요. 자전거로 다니곤 했어요. 이 마을의 이 근처, 이제 어디라도 알아요. 모두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해요. 그래도 제 아이는 너무 어렸고, 시간도 많이 있어서 남편이 회사에 가고 나면 여기 저기 자전거를 타고 구경을 하곤 했어요.

친구가 사는 곳에 갔을 때, 곤란했던 경험도 한 번 있었어요. 친구가 사는 데는, 우선 제 집에서 버스를 타고, A역에 가서 여기에서 전철로 B역에 가고 또 갈아 타고 C역이 친구가 사는 곳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A역까지 가고, 여기에서 버스를 탔는데 일본어 글자를 못 읽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다음 정류장 정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잘못 내렸던거예요. 그 때 아이는 3살이었는데 안거나 내리거나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조금만 걸어도 역시 이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잘 모르니까 버스도 타지 못했어요. 어쩔수 없이 걸으면서 때때로 뒤를 돌아 보며 '버스는 안 오는건가?' 하며 봤지만, 그 후로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나 걸어서 겨우 집에 돌아 왔어요.

ストーリー 04

한자, 외우고 싶다

한자는 자기 스스로부터 공부. 처음 일본에 왔을 무렵, 외출할 때, 차를 운전할 때, 간판같은 것을 계속 보고 간판에 써 있는 한자를 보면서 점점 더 기억하게 됐어요. 이 한자 모양은 이것이고, 저 한자 모양은 이것이고…… 그리고, 노래방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계속 보며 외웠는데 일본어로 어떻게 읽을지 몰랐을 때는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역시, 자신이 한자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자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교실에 갔어요. 하지만, 처음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일본어가 초보인 사람들이라서 기초만 다뤘기 때문에 지루해지게 돼 버렸어요. 그 후, 교실이 멀고, 시간도 걸려서 일단, 그만두었어요.

그래도, 한자는 굉장히 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자기 스스로 핸드폰을 보면서라든지, 자신이 직접 써 보거나 했는데 그럴 때 가끔 한자 획순을 잘 모를 때가 생겨서 자기 멋대로 쓰거나 했어요.

또, 예를 들면, 시청에서 오는 통지서가 남편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남편을 기다리고 집에 오면 "이거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묻거나, 또 어린이 집에서 오는 통지서도 잘 모르고 어려운 의미를 지닌 한자밖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히라가나로 쓰여 있는 말이라면 별개인데, 그래도 계속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남편에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물어 보거나, 모르는 곳은 남편에게 천천히 읽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어요.

ストーリー 05

사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

제 아이는, 지금 제 모국어를 하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집에서 제 모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는 조금이라면 이해를 해요. 여름 방학에 가족 모두 제 고향으로 갔어요. 그 때, 제 어머니는 손자에게 모국어로 "밥, 먹을래?" 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먹어요." 라고 모국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제 모국어를 그다지 말을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도 엄마 나라의 말은 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이는 제 고향에 있는 사촌들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ストーリー 06

광고지를 3년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통역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계기는 일본에 왔을 때, 연금 이외의 다른 행정 절차 등록 때문에 시청에 갔을 때, 광고지에서 우연히 통역 도우미 모집을 봤거든요. 이 광고지를 계속 3년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3년째 살고 있는 곳에서 열린 국제교류협회에 가서 통역 도우미 등록을 했어요. 9개월 후에 전화가 걸려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의 간담회라든가 면담이 있을 때 학교에 가서 저와 같은 나라에서 온 어머니들의 말을 대신해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을 때, 제 자신의 일본어 표현으로 통역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았을텐데.' 라든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일본어 참고서를 열어 본 후 '아, 이러한 표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즐거운 일도 있어요. "모국어 교실에서 도우미를 해 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받아서 이 도우미 일도 시작했어요. 평소 바쁘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제 나라의 말을 가르치는 일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ストーリー 07

그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아이가 두 살쯤 되면, 친구도 생기길 바라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기뻐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요리였어요. 직접 만든 요리를 모두들 좋아하더라고요. 바나나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믹서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아이들에게 주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제 모국의 요리를 안 먹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준 카레나 일본풍의 찌게 음식을 받았거든요. '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구나!!', '이러한 음식을 못 만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항상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요일에 만들어 주는 것이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한 스파게티라든지 햄버그였어요. 그것을 보고, 놀러온 아이들에게 햄버그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약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요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일했어요.

그 때쯤에,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과 알게 되어, 어느 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고 하니, 일본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 고 물었어요.

일본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고 답했어요.

그 분은, 몇 년동안 요리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리사 자격증을요. 쓰는 것은 못하지만, 읽는 것은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국가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만 두고, 그 분께서 소개해 주신 새로운 직장인 주방에서 5년간 근무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ストーリー 08

집을요, 개방해 버렸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불쌍해졌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아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했죠. 제 아이와 놀면서, 장보러 가는 잘 모르는 어머니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일단, 이럴 때의 사용할 일본어를 외워 놓거나 써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아요. 같이 놀아요." 라고 말을 걸며, "저에게 아이를 맡기겠어요?" 라든지 열심히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 어머니들께서 저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 상대를 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면 될까?' 라고 또 생각해 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맨션에서도 길가에서도 자신의 집 주위 외에는 청소하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열심히 청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때마침, 조그마한 공원이 제가 사는 집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끗이 몇 개월동안일지 한 반년동안 청소하고 있었더니 말을 걸어 주더라고요. 말을 걸어 오거나, 이웃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거나 해서, 그 때문에 저희 집을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교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집을 완전히 개방해 버렸어요.

그래도,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말을 걸어 주지 않아요. 아이라는 존재는 타인이 말을 걸어 줄 때 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울타리 안에서만 돌보면 사고가 멈춰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서워지잖아요. '이제 친구들과 싸움도 해야만 하고, 놀아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요.

ストーリー 09

일본 음식 맛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밥, 가장 처음에 저는 일본의 식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일본의 음식은 단데, 제 고향 집은 소금과 후추 맛으로 깔끔한 맛이기 때문이에요.

못 먹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전부 제가 자신이 먹을 만큼을 만들었어요.

가끔 물만두를 만들거나, 튀김이라든지를 만들거나 해서 그 때는 가족과 함께 먹거나 했어요. 설겆이는 그 날 당번자와 같은 역할을 정해 놓고, 아침에는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설겆이를 했어요. 밤에는 시어머니가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 운전을 못해서 장을 보려면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부탁해 같이 가곤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간 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검진이 있을 때는 간호사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마른 체형이고, 혈압도 낮았기 때문이에요. 간호사는 저에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는 남자 아이라서 이런 정도의 체력이면 쓰러져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앞으로 한밤중에도 일어나야만 했어요. 곤란했던 것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날이 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졸려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굉장히 마른 체형이라서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한다고 간호사가 말해 주었어요.

때문에 '아이도 있으니까 뭐든지 먹지 않으면 안돼.' 라고 생각하며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부터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 보도록 했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달아서 싫어던 음식들이, 예를 들면, 삶은 호박처럼 달게 느껴지는 음식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해.' 라고 하며, 먹으면 먹을수록 왠지 맛있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음식맛에 익숙해지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일본의 음식맛이 좋아요. 모국에 돌아가면 모국의 음식을 굉장히 먹고 싶은데, 막상 먹으면 그리운 느낌이라고 할지. 지금은 맛있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곤 해요.

ストーリー 10

경어가 아니면, 역시 실례예요

역시 일본어에는, 경어라든가 존경어라든지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면, 어느 때 사용한다거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에 판단이 좀처럼 어렵더라고요. 일본인이라면 머리 회전이 바로 될 것 같은데, 외국 사람이 되면, 우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례스러운 말을 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윗 사람인데, 보통 반말을 사용해 버린다거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모두들 바로 이해 해 주세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는, 일본어 교실에서 알게 된 분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본어 교실 선생님께도 "다음에 중국어,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듣거나 해서, 마침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서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교실에서 일을 도와 주거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중국어를 가르칠 때, 공부가 되고, 자신도 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찾았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중국어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교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의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곳은 어른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실례라고 들었어요. 중국어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평소에 사용하는 일본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곳에는, 회원들의 모임이라고 할지, 어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교실이 아니라서, 학교처럼 정식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즐겁게 취미로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계셔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좀처럼 잘 사용하지 못해요. 어렵거든요.

ストーリー 11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

자동차 면허는 아이가 1살때 취득했어요. 집을 이사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의 불편함을 느껴서 그랬던지 아이를 봐 준다고 해서 자동차 교습소에 갔어요. 하지만, 언제나 가족들만으로 아이를 돌보면, 아이와 접촉하는 것은 가족들만이 됐기 때문에 교습소에 있는 탁아소에 데리고 갔어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제 아이와 접하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면허를 따서 행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아이를 어린이 집이나, 다른 여러군데의 어린이 집에서 개방하는 운동장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들끼리 친구가 생기거나, 아이의 친구들도 늘어났어요. 어린이 집에 있는 운동장을 개방할 때는 그 곳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중국에서 와서 일본어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은 여러가지 알려 주셨어요. 사람들은 역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거리낌없이 빨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리고 싶더라고요. 산부인과의 임산부 모임회 때도 그랬지만, 늘 빨리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인상으로 남는다고나 할까. 친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때문에도 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기 전에 유치원에 들어 갔어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다지 없어서 제 아이를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해 주고 싶어서 빨리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웃에 같은 또래의 아이가 둘 있어서 거의 매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하며 일본어도 여러가지 배웠어요.

ストーリー 12

귀화하려고 생각한 것은 역시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 자신이 귀화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역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외국인 아이들은 옛날 일이지만, 왕따를 당하는 뉴스가 가끔 있잖아요. 역시, 저도 외국 사람이고, 예를 들면 운전 면허증을 따러 갈 때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지니고 가야하는데 자주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면허증을 따러 가야 했지요.

대사관에 갈 때도, 외국인 등본(재류카드?) 같은 것을 잊어버린 일도 있어서 다시 한번 동경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만약 아이가 커서, 예를 들면 취직할 때,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니까 서류등도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귀화한다면 '호적 등본, 주민표. 첨부 서류가 1장으로 충분할텐데…' 라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고생을 시킬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래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귀화를 결심했어요.

귀화할 때, 제 부모님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 라고 하셨는데. 역시, 외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셨어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은 없는데 말이에요. 외국인 쪽을 좀 더 친절히 대하거든요. 참으로, (가족 서류가 필요할 때) 제가 서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일본 사람보다 빨리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제 부모님은 역시, 외국에 사는 거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외국 사람 취급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셨어요. 귀화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해." 라고 하시며 "아이도 일본 사람이고, 남편도 일본 사람이니까 가족 모두 같은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처음에는 저도 귀화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부모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편이 자신들이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모두 가족이 됐으니 진짜 가족이니 같은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화한 것이 섭섭하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지만 섭섭하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고 형제들에게는 솔직히 말하지만, 형제 중에는 반대를 하는 언니도 있었어요. 그 언니는 "귀화하면 다음에 중국에 못 돌아온다." 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빨리 귀화하라고 하시는데, 역시 친구나 친척들에게 정말로 그대로 말하면, "어, 왠지 이상해졌어." 라든지 말하며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은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자신의 나라가 싫어졌다고 들으면 난처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그다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벌써 귀화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말하지 못해요.

ストーリー 13

출신지의 자존심을 갖도록

저는 여행을 하다가 알게 된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왔습니다. 당시 가장 곤란한 문제는 일본어였습니다. 물론 생활이나 인간관계도 있었습니다만……

결혼한 지 1년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처럼 내 모국어로 말을 걸었죠. 아들은 유아때부터 일본어와 외국어로 말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빨랐어요. 그래도 바깥에서 모국어로 말하면 종종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어로 말하는 것(외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다니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새내기 엄마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아이에게 배우게 하도록 권합니다. 물론 자신의 출신지의 자긍심을 갖도록……

아들 덕분에 일본인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곧바로 거부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본인과 접촉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일본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살아 보니까 일본인은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친구를 찾아다니죠.

아들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상급생에게 "너네 엄마 외국인이지"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들은 "엄마는 외국인이지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해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는 전업주부, 전업 엄마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내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일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고서 다양한 지역의 일본어 교실에 다녔습니다. 많을 때에는 일주일에 여덟 군데에 갔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교류 활동 등도 했습니다.

일본어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본어 노래 가사를 읽고서 이해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일본어능력시험을 치렀을 때 깨달은 것은 지역 일본어 교실에서는 일상회화나 기본적인 일본어는 학습시켜줬지만 시험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그것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의 개방대학 과정에서 공부하였고, 선생님과 도와준 학생 덕분에 일본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뒤 '외국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가 다양한 곳에서 개최되어 4번 참가했습니

다. 첫 번째는 그냥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특별상, 세 번째는 위원장상, 네 번째는 시내의 스피치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종이접기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이나 일을 여덟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ストーリー 14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은, 아름답고 바른 일본어를 말하기 위해서인가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일본 사회에「동화」해 가는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일본에 와도 가능한한 일본 사회에 동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배우는 것에 의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외국인이 더 늘어난다면 아마 사회가 더 살기 편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깁니다만. 역시 자신에 있어서 강한 면모를 지니고, 그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당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신은 아마 일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일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로부터는 위화감이나 이상한 눈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 가면 좋지 않을까요?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사람의 가치관이라 할지, 본래 지니고 태어나는 심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미 자신의 신념처럼 된 경우는, 몇 십번 몇 백번 말하더라도 아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여깁니다. 제 경우도, 처음에 일본에 와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한 것은, 역시 일본 사람이 돼서 일본 사람답게 일본어를 말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양이라든지, 가능한 제가 일본어를 말할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다운 발음으로 듣고 원어민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좀 더 일본어를 능숙하게 말하고 싶다라든지, 무엇이든지 완벽함을 요구한다고나 할까? 이처럼, 계속 자신을 궁지로 몰아 온 시기도 길었기 때문에.

만약 일본어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일본 사람에게 끝까지 추궁하는 '이러한 표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라든지. '통하지 않나요?' 처럼. '이러한 말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는 듯이. 역으로 그 일본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서로의 말들이 좀더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느낀다면, 자신은 외국인이고, 그냥 일본어는 자신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벽한 일본어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사람도 깨닫는다면, 좀더 즐겁게 일본어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ストーリー 15

언어 문제 말고도 일본에서 살아가며 밟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 시스템 등 일본의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중국 잔류 일본인(中國殘留邦人: 과거에 일본의 만주국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다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 하고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과 그 자손들을 지칭, 전쟁고아, 전쟁 희생자라고도 한다-옮긴이)등 지원과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주로 중국 잔류 일본인 1세만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현재 저는 A시의 4세대(世帶)를 일주일에 2일, B시의 10세대를 일주일에 2번, C시의 22세대를 일주일에 1회 각각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원 활동에 관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 잔류 일본인 1세의 사연입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귀국자라도 중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잔류 일본인은 패전 후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농촌에 남겨진 사람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학교에 다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중국 잔류 일본인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갈 수 없었답니다. "왜 못 갔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제 이름을 부른 창구의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어느쪽으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 저는 똑같은 병원에 두 명의 귀국자를 데리고 가서 검진받는 과정을 통역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일본어로 말할 수도 없는 1세는 절반 가량이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전부 시청 창구로 가져가서 함께 물어봐가면서 기입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 말고도 일본에서 살아가며 밟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 시스템 등 일본의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년 수입 신고, 주택 신고, 수도요금, NHK 방송 요금 등 서류 제출도 많습니다. 이런 절차를 처리하는 문제는 1세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생활에 관한 고민 상담은 대체로 병원에서 진찰을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들어줬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혼자서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은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2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동문제 상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참 어렵더군요. 회사 기계에 손이 끼여서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잘렸는데, 회사에서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개인 차로 병원로 옮기고 치료 후 70만엔을 지불하고 해고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일본인 합동노조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결국 2500만엔의 수당과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2세는 계약서를 읽을 수 없으니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만인 셈입니다. 갑자기 해고당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계약서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 사정은 꽤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해도 계약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약제사 전문 공부를 3년 동안 하고 나서 졸업하고 난 뒤 근무처 병원에서 5년 동안 약제사로 일했는데, 제 기억

으로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연금과 노후 생활이 불안하다고 걱정합니다. 보통 일본인보다 연금가입 기간은 짧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40대, 50대에 일본으로 건너온 2세는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어도 생활을 자립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1세를 앞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잔류 일본인(전쟁희생자)는 평균 70세 정도로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소할 노인시설이 그다지 없습니다. 보호 자격을 얻어도 2세가 보호 역할을 하지 않으면 1세의 보살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3, 4세분들의 사연입니다. 도쿄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 귀국자인 3, 4세는 120시간의 일본어 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통역자와 함께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모르는 귀국자는 적지 않습니다. 재작년 A시 국제협회일본어교실에서 공부한 귀국자 12명 중에서 3세 세 명이 고등학교 진로하는 문제를 상담을 하기 위해 몇 번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호자와 통역자와 함께 갔습니다. 몇 가지 연락 사항이 있어도 부모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덕분에 지금 일본어 교실에 남아 있는 D군이 본인이 희망한 A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자비로 가족 초청자격으로 귀국하여 7일째부터 시급 650엔을 받고 세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어를 공부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참 뒤 이곳저곳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일본어 교실에 다녔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네 곳의 교실에 다니면서 공부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잔류 일본인의 지원활동 이외에, 공민관 등에서 요리나 노래를 통한 귀국자의 교류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 온 내용대로 이런 저런 어려운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귀국자 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기쁘고 동시에 격려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

끝으로 여기에 소개한 사연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귀국자의 요구에 의해서 좀 더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지원활동에 힘이 되어주신다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